

'농도 전남' 농가소득 3400만원... 전국 최하위

통계청 2015년 경제조사... 1위 제주와 평균 900만원 차 부채는 2300만원으로 중위권... 전국 어업소득 7% 증가

지난해 전체 농가소득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전남 지역 평균 농가소득은 3400여만원이고 부채는 23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작년 농가의 평균 소득은 37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농도인 전남 지역 농가소득은 평균 3441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4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100여만원), 강원(3900여만원), 경북(3800여만원), 충북(3600여만원), 전북(3600여만원), 경남(3400여만원), 충남(3400여만원) 순이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제주와 가장 적은 전남의 차이가 900여만원으로 25%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지역 농가부채는 2358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500여만원), 전북(2400여만원), 경남(2100여만원), 충남(2100여만원), 강원(1900여만원), 경북(1700여만원), 충북(1200여만원) 순이었다.

부채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남 지역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중간 정도 순이었다.



농가소득이 높은 지역이 부채도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충북과 경북은 높은 소득에 비해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농가 자산 역시 전남이 2억6900여만원으로 9개 농도 중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

경기가 8억3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5억4000여만원), 강원(4억3800여만원), 경남(4억1600여만원), 충남(3억9400여만원)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농가부채와 농가소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유하는 농가자산의 영향도 크지만, 이런 지역적 차이를 줄여 전체 농가수준 향상과 농가부채 감소를 위한 농정당국의 정책적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어가의 평균 소득은 4389만5000원으로 7.0% 증가했다. 어업의 소득(1172만8000원)이 1.4% 감소했지만 어업소득(2308만6000원)이 10.0%, 이 전소득(507만9000원) 17.0%, 비경상소득(400만2000원) 5.6%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37.68 (-17.57)
- ↓ 금리 (국고채 3년) 1.44% (-0.02)
- ↓ 코스닥 687.71 (-3.29)
- ↑ 환율 (USD) 1192.70원 (+9.80)



첨단 안전기능 무장 '벤츠 뉴E클래스'

차간거리 유지·보행자 인식 기능 등...29일까지 시승 행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7년만에 풀체인저(완전변경)한 10세대 모델인 '뉴 E-클래스'를 24일 국내에서 처음 선보였다.

벤츠 코리아는 이날 인천 왕산 마리나에서 신형 E클래스 프리뷰 행사를 열었다. 오는 29일까지 언론과 고객 4000여명을 대상으로 차량 시승 등 신형 E클래스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신형 E클래스는 감성적인 디자인과 고품격 인테리어를 갖췄으며 개선된 자율주행 기능을 비롯해 새로운 차원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채택한 점이 특징이다.

앞차와 거리를 유지해주는 '드라이브 파일럿',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감지해 브레이크 압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교차로 어시스트'가 포함된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보행자 인식 기능이 포함된 '조향 회피 어시스트' 등의 운전 보조기능을 갖췄다.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다른 차량이 앞에서 들이받을 경우 운전자를 반대편으로 밀착시키는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 등 안전 기능도 강화했다.

신형 E클래스는 12.3인치 와이드 스크린 콕핏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완전한 3D 지도를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탑재했다. 이밖에 '터치 컨트롤 스티어링 휠 버튼', 좌우 각 84개의 LED로 구성된 멀티빔 헤드라이트, 파킹 파일럿(자동 주차) 등 편의사양을 포함했다.

벤츠 코리아는 다음달 말부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E220d,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E300, 가솔린 엔진에 4륜구동이 조합된 E300 4MATIC, 디젤 모델 E350d, 가솔린 모델 E200, E400 4MATIC과 디젤 모델 E220d 4MATIC 등 7개 라인업을 연내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하고 부가세를 포함해 6560만~7800만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소외이웃에 가스 타이머폭 무료 설치

해양도시가스 '안전 나눔' 총 319세대

해양도시가스(대표 김명환)는 지난 23일 가스안전주간을 맞아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운남주공아파트 1 단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총(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치매환자 등)을 직접 방문해 과열화재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폭'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노후 호스 교체 및 가스레인지 청소 등 현재까지 319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해양도시가스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스안전 나눔 봉사활동'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

김명환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몽드셀렉션 7연속 수상

하이트진로는 자사 프리미엄 증류주 '일품진로'가 세계적 주류 품평회인 '2016 몽드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증류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일품진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류로는 처음으로 몽드셀렉션에서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일품진로는 숙련된 양조 전문가들이 순살 증류원액 100%를 참나무 목통에서 10년 이상 숙성시킨 프리미엄 소주다. 1924년부터 이어온 하이트진로의 전통과 양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돼 국내 프리미엄 소주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마케팅실 이강우 상무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는 몽드셀렉션에서 7년 연속 대상을 받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대표 프리미엄 소주로 최고의 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중소기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합동 시책설명회'를 가졌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 중소기업 지원 시책·기업 정보 공유

광주상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업무협약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16년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합동 시책설명회 및 기관간 상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시책설명회는 각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추진·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지원 기관간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를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공동 발굴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시책설명회 자리에서는 광주테크노파

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 개발과 지원, 마케팅, 창업, 자금지원 등을 안내했으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보증·투자펀드, 스마트팩토리, 자동차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벤처창업 지원사업 등을 설명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지역 소용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에너지밸리기업개발지원센터는 기업육성과 자금 지원, 인력양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광주경제진흥원은 지원시책을 자금과 인력, 수출, 기술,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안내했으며 특히 광주일자리 종합센터 운영과 국내 및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광주은행도 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려 특별 경영안정자금, 에너지밸리론, 금융지원 보증서 협약대출, 지역산단 토지분양

자금 대출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 100만대 도시 조성해 힘쓰고 있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광기술원 등도 참여했다.

남한일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기업지원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 육성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는 만큼,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지원기관의 지원시책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책설명회 후 참여 지원기관은 기업육성지원을 위한 공동협력과제 발굴·추진, 기업지원사업 정보공유 및 홍보 강화, 기업지원 시책설명회 공동개최 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 성공비즈니스의 동반자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맛과 멋, 문화의 고장 화순으로 놀러오세요!

원	원	지	조	대	대	대	대
장	장	부	합	표	표	표	표
장	배	장	산	사	사	사	사
대	병	군	림	부	광	만	영
병	원	지	조	강	동	나	식
원	원	부	영	전	환	산	품
용	하	석	길	력	경	품	호